



MosBuild

WorldBuild Moscow

2020 러시아 모스크바 건축박람회(MosBuild)

1. 전시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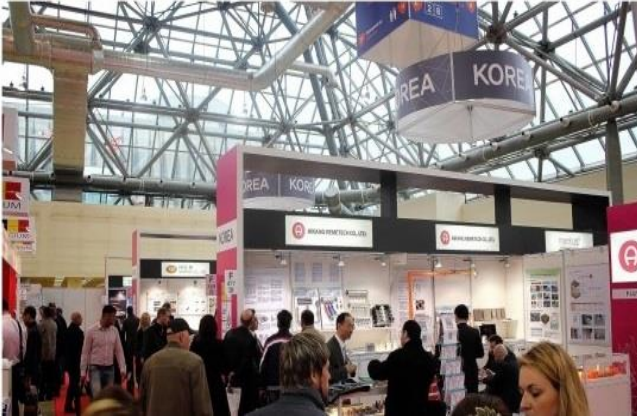
- 개최일시 2020년 3월 31일(화) – 4월 3일(금), 4일간
- 개최장소 Crocus Expo (러시아, 모스크바)
- 전시규모 100,000 sqm, 40개국, 1200여개 업체, 77,338명 참관
- 웹사이트 mosbuild.com
- 주최기관 HYVE
- 전시특징
 - 동유럽 최대 국제건축박람회이자 세계 5대 건자재 건축박람회.
 - 카테고리별로 두 주에 걸쳐 진행되던 전시회가 한 주로 통합되면서 바이어 집중도 높아짐
 - 기존 전시장보다 더 넓어진 Crocus Expo에서 전시를 진행하면서 더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CIS, 동유럽 바이어 대거 참가
- 전시품목 건축 & 인테리어, 건축자재 & 장비, 하드웨어 & 장비, 전원시설
관련자재, 바닥재, 조명 & 전기시설, 장식재, 인테리어 마감재,
도어 & 락, 페인팅 & 코팅, 벽 장식재, 외부마감재, 지붕재, 게이트
관련 시설, 건축용 유리, 방화장치, 석재 & 세라믹 등
- 부스가격 **기본 패키지 부스 USD 6,319 / 1부스(9sqm)**
 **포함내역 : 벽체 2.5m, 카펫(회색), 간판(H 30cm, 회색), 테이블 1개 (80*80cm),
의자, 쓰레기통 / 전기, 조명 미포함

**독립부스는 최소 12sqm부터 신청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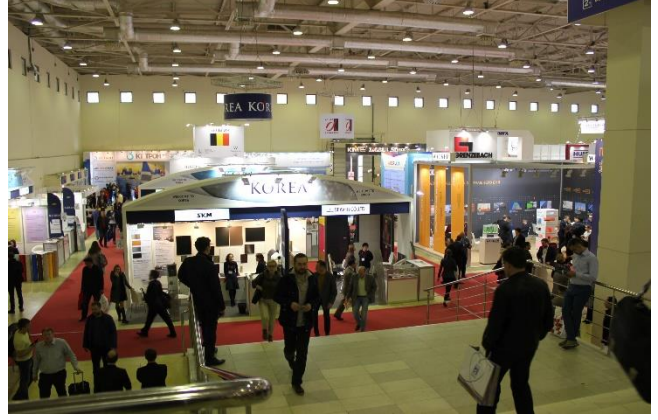


2. 지난 전시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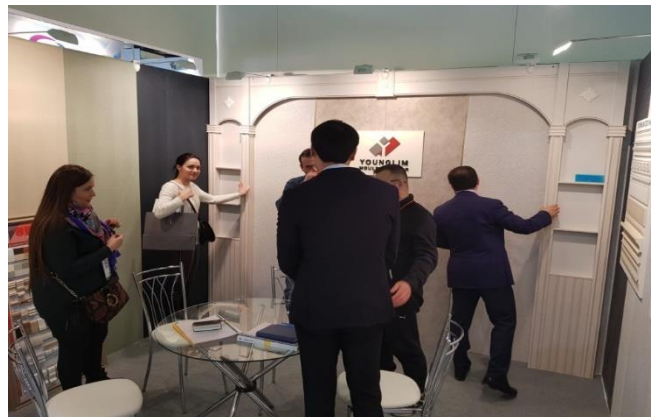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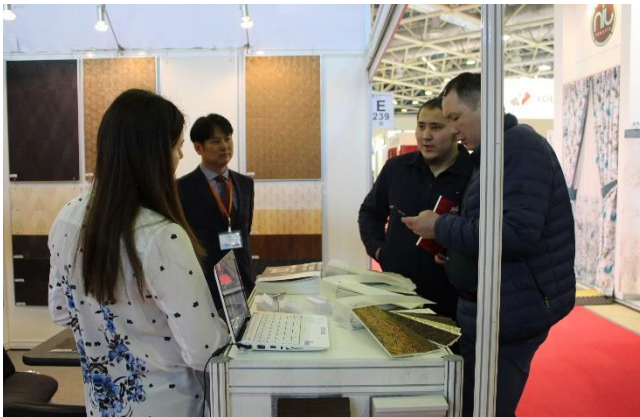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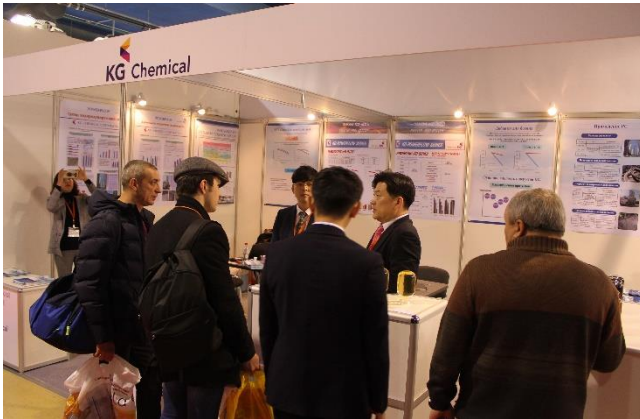
- 개최일시 2019년 4월 4일 - 7일
- 개최장소 Crocus Expo (러시아, 모스크바)
- 전시결과 80,000 sqm, 40개국, 1200여개 업체, 65,263명 참관



▲ 2015 Mosbuild 건축박람회 한국관 사진



▲ 2016 Mosbuild 건축박람회 한국관 사진



▲ 2018 Mosbuild 건축박람회 참가업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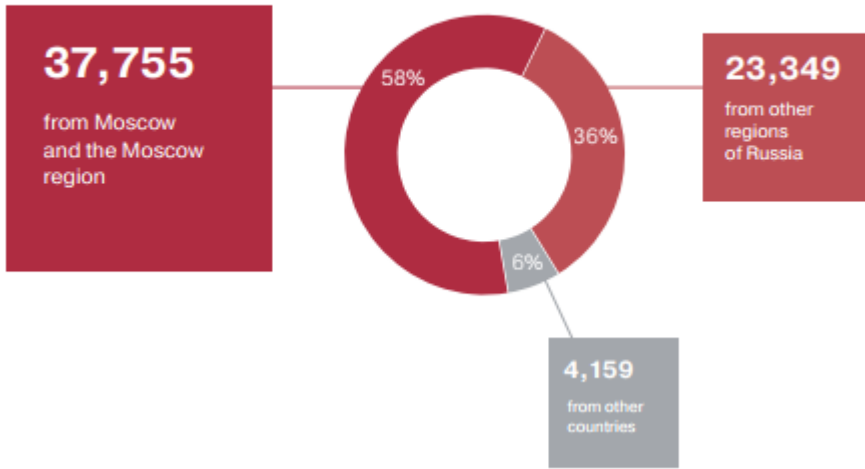
Total visitor numbers



The exhibition was attended by

▲ 2018 Mosbuild 방문객 수

Breakdown of visitors by geography



The exhibition saw **61,104** visitors from **83** regions of Russia. The number of visitors from Moscow and the Moscow region was **37,755** (58%), while other regions with the most visitors were St. Petersburg and the Leningrad region – **2,355** (3.6%) and Tatarstan – **1,098** (1.7%).

The exhibition saw **4,159** visitors from **62** other countries. The majority of foreign visitors were representatives of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from Belarus (**1,257**), Kazakhstan (**612**), and Ukraine (**252**).

▲ 2018 Mosbuild 방문객 국가별 분석

Interior finishes	30,288	(52%)
Building materials	28,979	(50%)
Bathroom	21,436	(37%)
Flooring	18,463	(32%)
Doors and locks	17,663	(30%)
Ceramics	17,109	(29%)
Wallpaper	16,306	(28%)
Electrical and lighting	13,448	(23%)
Facades, roof	12,879	(22%)
Eaves and curtains	12,558	(22%)
Equipment and tools	11,482	(20%)
Windows, window profiles and accessories	9,736	(17%)
Gates	6,181	(11%)

▲ 2018 Mosbuild 바이어 관심 품목

The broadest sector coverage in Russia

12

Sectors fully represented

- Building Materials
- Paints & Decorative Plasters
- Bathrooms
- Ceramics
- Doors & Locks
- Flooring
- Wallpaper
- Curtains, Textile, Curtain Rods, Shutters
- Wall and Ceiling Panelling and Moulding
- Lighting & Electrical Products
- Facades, Roofing, Gates, Windows
- Building Equipment & Tools

▲ 2018 Mosbuild 참가사 산업군

3. 관련 시장 동향

- 건설시장과 건설 장비 시장은 202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사회 경제 개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건설 부문의 국가 GDP 기여도가 6.5%까지 상승 기대
- 한국 기업은 적재 기계, 롤러, 아스팔트 부설기와 같은 도로 건설 기계 진출이 유망
 - * '오딘초보 도로 건설 프로젝트',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유도 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 도로, 교통 시설 마련을 위한 민관합작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
 - * 프로젝트 참여 및 건설 기계 납품에 있어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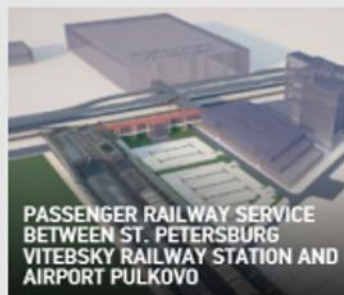
□ 러시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소비 진작

- 개최지 미화 및 정비에 따른 건설업 활황과 관광객 증가에 의한 소득 확대
 -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간 약 1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예상되어, 모스크바 평균 호텔 및 식당을 통한 가치창출은 약 50억 달러 예상
 - 월드컵 관련 기념품 판매로 약 1억 달러의 소비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 라디오 및 TV 중계권 판매 수익은 약 4~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드컵 스폰서 등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억 달러 이상일 것
- 월드컵 홍보효과로 인한 대 러시아 투자도 증가 예상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 후 남아공에 대한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APEC(2012), 동방경제포럼(2015~2016) 등 국제행사를 통한 극동 인프라 확충 주력
 - 아·태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 집중 추진
 - * 사례: 나훔카 비료공장 및 석유화학단지, 발쇼이 카멘 극동조선소 설립 등
 - 제조·가공 산업 발달을 통한 역내 경제구조 개선에 역점
 - * 극동지역의 수산, 농축산 관련 가공산업 육성과 아태지역 수출확대 정책 추진
 -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인 수송망과 전력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확대 전망

□ 서부 러시아 프로젝트 현황

- 모스크바 경제집중 현상으로 점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등 부각
 - Business Center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들이 추진, 대부분은 PPP(민관합작 프로젝트)형식
 - *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자위원회 프로젝트 정보 사이트: <http://spbinvestment.ru>
 - 한국 대기업의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과 신사옥 및 복합 비즈니스 콤플렉스 (Lakhka Center) 건립에 감리사로 참여 중
 - * Lakhka Center는 러시아와 전 유럽을 통틀어 최고층 빌딩으로 알려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철도 건설 프로젝트 (Pulkovo Airport - Vitebsky Railway Station)



- 프로젝트 상태: 현재 계획 중
- 프로젝트 구조: PPP방식 (건설 및 차량조달, 운영)
- 전체 투자규모: 약 189억 루블(약 3.2억 달러)
- 잠정 일정
 - (2016~2018) 프로젝트 수립
 - (2018~2021) 입찰 및 설계·시공, 차량 조달
 - (2021~2050) 공항철도 운영

(2016~2017년 1~7월 대 러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번	품목명	2016년		2017년(1~7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4,769	1.8	4,352	60.6
1	승용차	925	1.5	842	70.3
2	자동차부품	728	-13.2	664	68.1
3	선박	6	83.5	448	7,314
4	철구조물	114	309.7	248	123
5	건설중장비	109	82.5	146	211
6	합성수지	213	-12.0	143	24.3
7	타이어	99	28.5	91	71.3
8	공기조절기	36	-2.8	74	242.3
9	기타플라스틱제품	106	-0.7	71	18.5
10	아연도강판	90	-10.2	70	44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러 물류산업 진출을 통한 한국 기술·자본·자재·인력의 유라시아 진출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지방 균형발전 일환, 극동·시베리아·흑해연안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확대
 - * '바이칼-극동 철도 건설(East Polygon), 크림 Kerch다리 건설 등으로 러시아 건설자재 화물량 증가
- 유럽-동남아 최단 이동경로인 북극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자체적인 관심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확대
 - * 북극은 러 영토 40% 차지, 각종 자원이 집중(가스 80%, 구리 60%, 해산물 15%)되어 있음
 - * '2020 러시아 극지방 사회경제 개발정책' 추진으로 150개 프로젝트를 지정, 향후 수년간 870억 달러 투입 예정

◇ '北유인책과 경제발전'...두 마리 토끼잡는 '극동개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러시아 순방의 최대 성과는 극동지역 개발 등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로드맵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공통분모로 극동지역 개발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극동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고하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러 3각 위해 그간 논의돼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극동지역은 한반도 북쪽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으로,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이 향후 북한을 남·북·러 3각 협력체제에 끌어들이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을 유도해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단계를 구축하며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